

먹거리·즐길거리 가득한 완도로 오세요

郡, 다양한 축제에 풍성한 경품 휴가철 관광객 잡기 총력 맨손 고기잡기·갯벌 바지락 체험에 지역 특산물 파격 할인

완도가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피서객들이 몰리는 시기를 겨냥, 다양한 축제와 경품을 내걸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다양한 즐길거리 체험하고=완도군은 5일 노화읍 북고마을 개매기 축제를 연다. 개매기는 조식간만의 차가 클 때 갯벌에 그물을 쳐 놓고 밀물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갯바닥으로 노출되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이다.

특히 노화 일대는 어종이 풍부하고 다양한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게 완도군 설명이다.

전복잡이, 맨손 고기잡이 체험으로 나뉘며 전복을 이용한 전·파전·라면 등 마을 부녀회의 손맛을 느껴볼 기회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복 선물세트, 다시마, 미역 등 완도 특산물을 선물로 나눠줄 예정이다.

완도 금당에서는 5일부터 '갯벌섬마을 바지락체험행사'가 열린다. 간조시 넓게 모습을 드러내는 마을 앞 갯벌을 활용한 축제로, 청정 바다의 바지락·고동잡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일과 6일 이틀간 열리는 금당면 '갯벌섬마을 바지락체험행사'는 간조시 넓게

드러나는 마을 앞 갯벌에서 바지락 캐기 체험과 고동잡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민들이 직접 내놓는 옥수수, 감자 등을 맛볼 수 있는 장터도 운영되고 지역 특산품도 저렴하게 판매된다.

◇풍성한 경품은 '덤'으로=완도군이 매주 토요일 여는 '상상콘서트'는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공연 뿐 아니라 파격적 가격의 경품 이벤트, 해산물 할인 행사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

뜰에 박힌 컨테이너형 상가 운영과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재미를 보지 못했던 전년도 사례를 보완, 보고 먹고 마음껏 즐기자는 테마로 바꿨다는 게 완도군 설명이다.

상상콘서트는 지난해 7~8월에만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점에 주목, 매주 토

요일 오후 펼쳐진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데에 머물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경매로 1kg짜리 전복을 1000원부터 살 수 있고 1kg들이 전복 한 상자를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가 매주 마련된다. 완도의 인기있는 리조트 무료숙박권을 포함, 80만원 상당의 대박 쿠폰도 추첨해 나눠준다.

공연장에서는 해변공원 주변 맛집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상쿠폰도 얻을 수 있다. 쿠폰은 할인쿠폰, 1만원 무료쿠폰, 공짜쿠폰 등 3종류가 있다. 화센터, 전복판매소, 중국집 등 60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지난해 열렸던 '북고마을 개매기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그물이 쳐진 갯벌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매주 토요일 여는 '상상콘서트'. 문화공연은 물론 해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조선시대 가리포진(완도)의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 등을 소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완도군 제공>

완도 가리포진 이순신 장군 행적 재조명

장보고기념관서 학술 세미나

완도에서의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을 포함한 정부의 지역 공약인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사업에 완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이 나온다.

완도군은 최근 장보고기념관에서 '가리포진(완도)과 이순신 장군 발자취 재조명 학술세미나'를 열고 당시 행적과 활동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는 이순신 장군이 지난 1591년 제 54대 가리포진 첨사로 발령받은 뒤 1598년 완도 고금도에 묻히기까지의 행적과 관련, 완도와의 관련성을 찾고 재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영래 완도문화원장은 발제에 나서 조선시대 가리포진의 첨사 명단과 활동 내용을 담은 '가리포진선생안'을 발굴, 공개하고 이순신 장군을 돕는 데 완도 지

역인들이 함께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인선 순천대박물관장은 가리포진의 형태가 전국 어디에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산성과 읍성의 혼합형으로 이뤄졌으며 조선시대 서남해지역인 마도·회령포·여란포·남도포·금강도 등 5개의 진을 관할하는 거대한 진영이었다고 밝혔다.

정현창 전남도 이순신연구소 부소장은 거북선이 만들어진 곳을 가리포진 선소로 꼽았고 노기욱 전남도 이순신연구소장은 호남 최고의 전략 요충지가 가리포진성이었음을 과거 기록을 통해 제시하고 가리포진 관아 건물 40여동의 연차적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완도군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대통령 지역공약에 포함된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완도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군 섬과 섬 잇는 관광상품 개발 나섰다

'완도섬 여행등대' 용역 착수 4개 권역 나눠 연계 시스템 편의성 높여 섬 관광 활성화

완도가 독특한 섬 문화를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어 성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완도군은 3일 '완도섬 여행등대'라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섬과 섬을 잇는 관광상품 개발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섬을 비롯한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

265개의 섬으로 이뤄진 완도의 지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보길도와 청산도 등 독특한 문화를 갖춘 섬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에도, 개별 섬 위주로 진행되면서 관광 동선이 고장·확립화돼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완도만 하더라도 4개 권역별 12개 섬이 갖는 다양성에도, 관광 인프라 및 상품·전문인력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관광 상품과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완도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용역을 통

해 ▲노화·보길·소안 ▲완도읍·신지·고금·약산 ▲청산 ▲생일·금당·금일 등 4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대표 여행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키로 했다.

완도군은 10월께 중간보고회를 갖고 1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제출된 용역안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내 대표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계기로 완도지역 섬 전체의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각계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역 관광 성공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 송호해수욕장 한여름밤 음악축제 5일밤 야외 특설무대

해남 송호해수욕장에서 한여름밤의 음악 축제가 열린다.

해남군은 오는 5일 오후 7시30분부터 송호해수욕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제 8회 송호해수욕장 푸른음악회'를 연다.

푸른음악회는 피서객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형식으로 꾸며지며 청소년 록그룹, 난타, 우쿠렐레 공연 등이 펼쳐진다.

해남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군 '아리랑 시네마' 위탁 취소하라"

"특정문화원 혜택 불공정 계약"...군의회, 郡에 요구

진도군의회가 최근 개관한 작은영화관 위탁 운영에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의회는 최근 '작은영화관 운영자 취소 요구' 공문을 진도군에 보내 작은영화관인 아리랑시네마의 위탁을 맡은 진도문화원과 계약을 취소토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리랑시네마는 최근 진도읍 동외리 무형문화재전수관 옆 2개 관(59·39석)을 갖춘 소규모 영화관이다.

영화관은 진도문화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의 운영 노후와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의회는 그러나 특정문화원을 운영업체로 선정하는 혜택을 주는 불공정 계약

이라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군의회는 앞서 집행부측 결정에 반발, 영화관 개관식에도 불참한 바 있다.

진도군은 그러나 인구수 등 지역 규모가 적어 유상 임대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진도문화원에 위탁을 맡겼다는 입장이다. 군은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작은영화관(28개) 중 위탁운영업체의 경우 22개소가 전문기관, 3개소는 지자체, 3개소는 지역문화원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역문화 예술사업으로 환원한다는 조건을 붙인 만큼 특별 계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리랑시네마는 개관 이후 연일 만석·매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진도군체로 선정하는 혜택을 주는 불공정 계약

/진도=박현영기자 hyark@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십시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